

유현종의 『들불』 연구

— 동학농민전쟁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황 국 명*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사상의 비역사적 기원과 이념의 |
| 2. 민중 인식의 양면성 | 지평 |
| 3. 실권적 지식인과 농민군 지도자 | 5. 마무리 |

1. 들머리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전쟁의 의의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특히 전쟁의 배경과 실제 목표, 전쟁 주체세력, 동학과의 관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본고는 유현종의 『들불』이 변동기의 인간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어떤 이념적 지향과 연관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문제는 역사적 자료보다 해석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정은 농민전쟁을 소설화한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¹⁾. 동일 사건

* 인제대학교 교수

- 1) 소설문학에서 이미 최인옥의 『전봉준』, 박연희의 『여명기』, 서기원의 『혁명』,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유현종의 『들불』,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강인수의

을 보는 작가의 눈이랄지 서술의 초점이 상이함은 말할 필요가 없고, 소설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이나 교훈도 그 전쟁을 얼마나 새롭게 해석하느냐에 의존하는 것 같다. 작품들 사이에 드러나는 해석의 차이나 변화는 해석에 개입하는 주관적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해석상 백지상태로, 즉 어떤 이념적 편견이나 경향도 없이 물 자체로서의 사건을 대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시간을 통해 누적되어온 해석을 참조하거나 거부하면서 역사에 접근한다. 따라서 과거에 관한 소설적 형상화는 작가의 해석상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다양한 가정과 이념적 지반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전쟁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은 해석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경쟁한다고 할 것이다.

경쟁하는 해석들은 역사에 관한 독자의 인식을 확장하고 다변화시켜 주겠지만, 거기서 독자가 언제든지 잘못 설득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문학이 현실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것인 만큼, 이들 해석의 궁극 모델은 삶 자체일 것이다. 따라서 삶에 관해 우리가 잘못 설득될 때, 그 삶이 얼마나 궁핍해질 것인가는 자명하다 하겠다. 『들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들불』은 비교적 일찍 착수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3부작 역사소설이다²⁾. 제 1부 상·하편은 갑오년의 동학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하고, 제 2부 상편은

『최보따리』, 송기숙의 『녹두장군』, 한승원의 『동학제』, 이병천의 『마지막 조선정은명기』 등 굵직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들 작품은 동학이라는 종교와 무관한 차원에서 농민전쟁을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동학과 농민 전쟁을 결합시키기도 하며, 복점의 활동을 중시하거나 하층민민의 영웅적 활약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본능에 초점을 두는 등 실로 다양한 면모를 드러낸다. 이런 사정은 사회과학 쪽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학과 농민전쟁의 관련에 대해 동학이 농민전쟁을 주도했다 하여 동학사상의 혁명적 지도를 인정하는 동학운동(혁명)론, 조선사회의 내재적 변혁운동을 중시하여 동학사상의 역할은 부정하되 동학의 조직이나 남접만을 변혁세력으로 인정한 농민전쟁론, 농민전쟁의 외피로서 동학의 사상과 조직을 결합했다는 절충론 등이 그것이다.

- 2) 동학과 동학사상을 제재나 주제로 삼아 포교를 주된 목적으로 할 때, 『동학소설』이라는 장르종이 성립될 수 있다. 강인수, 한국문학과 동학사상(도서출판 지평, 1989), pp. 134-138 참조. 『들불』은 전체 3부로 계획된 미완성 역사소설로 현재 2부 상편까지 상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은 1부 「동학난」을 1976년에,

국권박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고의 목적상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1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역사소설로서 한 시대의 격동기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독자의 역사적 삶과 현실 인식에 새로운 울림을 줄 수 있느냐에 평가의 관전이 있을 터이다. 이에 본고는 『들불』에 나타난 민중에 관한 인식과 주요인물의 행위를 검토하고 동학과의 관련 및 이념적 지평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민중 인식의 양면성

1) 향민과 원민 : 수동성과 맹목성

제 1부의 전체 25마당에서 1-9마당은 농민군의 고부기병 이전으로 임여삼 일가의 파탄, 광무출의 저항, 이진악의 변모, 화적패의 야망, 탐관의 늑탈, 왜상인과 첩자의 암약, 비참한 농민의 생활 등을 드러낸다. 10-17마당에서는 농민군의 1차기병에서 전주화약까지를 다루면서 여삼의 동학 입도와 활약, 개화주의자로 변신한 광무출의 전도사업 및 무기밀매, 이진악의 편력이 다루어진다. 18-21마당은 집강소 행정기간으로 전봉준과 김개남의 성격적 대비, 일제의 왕국 침탈과 군국기무처 성립, 대원군에 대한 이진악의 실망 등을 취급하고, 23-25마당은 2차기병과 우금고개 전투를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들불』에서는 임여삼, 광무출 등 빈농하층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수적 수구세력, 원징회, 이진악 등 권력배분에서 소외된 지식인, 지선교라는 사교를 이끄는 김개팔 등의 화적패, 영주인 배서방 등 매판적인 상인층, 전봉준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부, 암약 침탈하는 청·일 등의 외세가 작품 전편을 통해 상호 대결하거나 타

2부 「남사당」은 10년 뒤 1987년에 세종출판공사에서 상재되었다. 거기서 작가는 5부작으로 구상한 것이라 하고, 또 2부의 후기에서 거들 일가의 삶을 파헤치고자 한다고 적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세종출판공사 판을 다시 국권박탈 이전, 국권박탈기, 해방 이후로 크게 나눈 3부작으로 구상하여 1부 상편 「새야새야」, 하편 「늑두꽃」을 1991년에, 2부 상편 「인동초」를 1992년에 지양사에서 간행하였고, 작가는 이를 완고로 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지양사본을 텍스트로 삼는다.

협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농민전쟁을 취급함에 있어 농민군 지도자를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들불』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들불』은 위기에 처한 변동사회를 헤쳐나간 다양한 계층의 삶을 전체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역사의 추동력을 해명하려는 소설이라 하겠다.

작품을 상재하는 책머리에서, 작가는 임여삼과 같은 이름없는 농투성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지적한다.

동학을 그리면서 구태여 전봉준과 같은 지도자를 쫓지 않고 이름없는 농투성이 임여삼 일가의 얘기를 쫓은 것은 역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름없는 민초들에게서 나온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각계각층의 삶을 보이되, 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을 빈농하층민에 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역사를 움직인다는 이들 농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살펴보자. 『들불』에서 일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A) 백성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집쟁이지만, (B) 인내의 한계에 달해 분노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이는 같은 하층농민인 광무출, 실권적 지식인 원정희, 대원군과 그 손자 이준용, 전봉준 등이 공유하는 내용(1부 상, 110, 249, 1부 하, 139, 188)이다. 그런데 (A), (B)는 농민에 관한 양면적인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부류는 실권적 지식인인 이진악에 의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얻는다.

(A) ‘우환중에도 흙파고 농사지을 생각을 하는 농사꾼도 있구나.’(1부 상, 276)

(B) 이관사관 일어난 무리들은 독사가 된다. 독사에게 이성이 있을 리 없다. (1부 상, 275)

(A)의 측면에서, 농민은 관을 두려워하고 ‘흙이나 파먹고 살라면 감지덕지’하는 존재이다. 그들은 변혁보다 팔자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수동적 순응적 존재(1부 상, 63-64, 123)이며, 어떤 異神도 믿으려 드는 ‘이기적인 신앙관’을 지닌다는 것이다.

너무도 굶주리고 너무도 절망스런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만큼 이기주의자가 된 것이다. 이웃을 구제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나와 내 가족만 구원해 준다면 어떤 망국의 이단신이라도 백번 믿을 판이

다.(1부 상, 182)

(A)를 따르면, 농민은 권리의식이나 변혁의지를 결여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한다. 허균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그들은 恒民에 가깝다. 향민의 이기적 자기유지적인 측면은 오랜 박해와 외세의 침탈에 대한 역사적 전망증으로 이어진다.

농민은 언제나 전망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전망증이 없다면 강물처럼 길게 살아가지도 못할 것이다. 자기들 선조 중의 여러 사람이 당나라 사천 땅에 끌려가 노예생활을 하다 죽었건, 탄현 황산벌의 동족상잔 싸움에 제물이 되어 무참히 죽었건, 그것은 당대(當代)의 사람만이 앓았던 뼈아픈 상처요, 그들의 아들부터는 벌써 잊어버리고 만 옛얘기일지도 모른다.(1부 상, 73)

그러나 농민의 전망증을 단순히 역사에 관한 무지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각자가 처한 자기 시대의 특수성, 그들의 역사적으로 특수한 운명을 의미한다. 이 특수한 운명이 위기에 찬 변동기에 놓일 때, 그들은 적대적인 양 진영 중 어느 한편을 열광적으로 편들지 않는다. 오히려 양 진영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그럼으로써 삶을 '강물처럼 길게' 이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의 전환기에 놓인 것이며, 그런 전환기에 그들의 동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또 전란 속에서도 감자씨를 심는 것이 농민의 소박한 유토피아적 소망³⁾을 암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A)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의 연속성은 삶의 이기적 재생산이 아니라 역사적 위기와 관련된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으로 파악될 수 있다⁴⁾. 그러나 『들불』은 빈농하층민으로서 자기계급을 배반하는 광무출을 제외하고, 향민적 측면을 더이상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들불』은 일상생활의 연속을 ' 역사를 움직이는 힘'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것이다.

(B)에 따르면, 백성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자각하고 불평 불만을 품고 있으나 조직이나 지도자가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怨民처럼 보인다. 대체로 『들

3) 이보영, <동학혁명과 소설화의 문제-「혁명」과 「들불」> (『표현』, 89년 16호), p. 60.

4) 적대적인 양진영 사이에서 동요하면서 공감하는 민중은 일상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거나 문화 발전의 연속성에 토대를 제공한다. G.루카치, 역사소설론(이영옥 역, 거름, 1987), p. 36.

불』에서 역사를 추동하는 힘은 이들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놈들이 혼불이 되어가고 들녘으로 나가면 한이 맺혀서 들불이 되는 게랴! 그것도 시절이 하수상하면 들녘 곳곳에서 들불이 모인대네.”

여기저기 생기는 들불을 보고 하던 말이었다. 그때는 그냥 컷가로 스쳐들었지만 오늘 이곳을 지나면서 여삼은 비로소 그 노인들의 말뜻을 깨달았다. 한과 원이 맺힌 백성들의 혼불은 바로 방방곡곡에서 일어났고, 지금 십수 만의 불덩이가 하나가 되어 도도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인제 원과 한은 풀린다! 그것을 풀려고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난 것이다.’ (1부 하, 220)

‘십수 만의 불덩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함은 농민군이 하나의 통일적 연대 속에서 변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농민군은 그런 연대 속에 있을 때 사회적 의의를 부여받게 된다⁵⁾. 이런 까닭에 수동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파악된 향민적 요소가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단위의 대중으로 행동할 때, 개인간의 차별성이나 개별성을 결여하게 된다. 동학군 내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다(1부 상, 301)는 짧은 진술 외에, 그들의 구체적인 생각, 정서가 표현되지 않음은 이 때문이다. 한 농민이 “어디를 가나 붉은 산, 황토색의 지친 한숨소리만 차 있”(1부 상, 38)다고 탄식하는 것도 자신의 참담한 상황에 대한 농민다운 표현일 수 없다. 그 결과로, 『들불』에서는 당시 농민의 생활과 풍속이 구체화되지 못한다⁶⁾. 개별성을 통해 집단성이 구체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들불』에서 농민군의 행동은 집단적 한풀이로 파악된다. 농민군의 행동을 집단적 한풀이로 드러낼 때, 그들이 전쟁의 이념과 목표를 주체적으로 인식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원한에는 역사적 시효가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들불』은 (A)의 향민적 측면보다 (B)의 원민적 측면을 강조하더라도 농민

5) 대중은 천박하고 무지하며 변덕스럽고 무차별적인 군중과 사회 역사적 조건을 변혁하기 위해 긴밀한 연대 속에서 행동하는 민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개인간의 개별성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대중을 부정적으로 파악한 것이며, 후자는 사회제력으로 통일성을 성취하기 위해 분별을 피해야 한다는 뜻에서 대중을 긍정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R. Williams, Keywords(Fontana Paperbacks, 1983), PP. 193-195.

6) 다만 상편 12마당 끝에 풍물을 노는 장면이 짧게 소개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송기숙이 『녹두장군』에서 두레의 조직과 관행을 복원하고 그것이 가진 조직적 기능과 풍물에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의 생각과 정서를 농민의 주체적 관점에서 형상화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들불』은 농민을 이끌고 지도할 지식인 혹은 지도자를 강조하게 된다. 여진민란 당시, ‘자연 발생적인 잔인한 보복’을 치른 후 농민들은 임호한을 지도자로 받들면서 그의 과감한 행동과 결단을 추구(1부 상, 64)한다. 일본인의 농간으로 화천말의 땅을 빼앗기자 농민들이 저항운동을 펼치지만, 정한이 도피한 이후 그 운동은 지리멸렬해진다. 그 이유는 “이끌어 주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때문이라 말해진다(2부 상, 311). 이진악과 전봉준 역시 지식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같은 지도자의 강조는 농민대중을 무분별한 본능을 지닌 존재, 합리적 사고를 결여한 비이성적 존재로 이해함을 드러낸다. 이는 지식인 이진악이 (B)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층빈민에 대한 상층계급의 편견이거나 공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백성이 지닌 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민중 인식의 양면성은 농민의 주체적 성장에 대한 부정이라는 역설에 이른다.

2) 가족사적 연속성 : 영웅의 기념비화

수동적 비이성적인 농민을 조직하고 끌어갈 지도자가 강조된 결과, 『들불』은 임여삼 일가의 영웅적인 행적에 과도한 비중을 두게 된다. 임호한, 임여삼, 임정한에 이르는 가족사는 『들불』의 중추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임여삼의 아버지 임호한은 서양종교를 배척하는 동학교도이며, 맨 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의 놀라운 힘을 소유한다. 그는 은결조세에 항의하여 여진민란을 주도하여 ‘의인’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적극 반란보다 체제 내적 개혁을 요구하고 사태가 평정되면 자수할 의사까지 있었으며(1부 상, 66, 109), 도피한 이후 작품에 등장하지 않아 그의 행적을 알 길이 없다. 그의 아들 임여삼은 처음에 상황 인식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아버지의 행위가 올바른 것이라는 인식이 없고, 어머니는 노비로, 여동생은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등 가족 전체의 파탄에도 팔자 타령을 하며 순응한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주는 이진악을 만나고 마침내 동학에 입도하면서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즉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던 꼭두각시”가 아니라 “제 정신으로 말하고 제 정신으로 움직이는”(1부 하, 91) 주체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못지 않는

힘으로 공을 세워 승진하는 등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

사회의 중요한 접점에 이들 가계를 위치시킨 것은 역사의 핵심을 꿰뚫는 작가의 원대한 역사적 안목을 입증한다. 또 가족사적 내림으로서의 계기적 저항은 분편 다원적인 일상적 삶과 그것의 무질서한 연대기적 연속에 질서와 인과의 계기를 붙여넣는다. “그 애비에 그 자식”(2부, 59)이라는 말처럼, 이들 가계의 후손은 일반농민과 달리 선대의 고통과 상처를 망각하지 않고 대물림한다. 따라서 『들불』에서 아버지의 계보적 엄숙성⁷⁾이 후손의 행위를 규제하는 질서의 원리로 작용하고, 이로써 인간의 삶을 목적지향적인 것으로 형상화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족사적 내림으로서의 저항은 첫째, 가족구성원이 저항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임여삼은 화적패의 일원으로 무장 군아를 습격하다가 동학군에 휩쓸리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우연한 사건이라 하겠다. 임호환과 정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임호환 역시 쫓기던 농민 강진달이 하필 그의 집으로 피신함으로써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고, 여삼의 아들 정한 또한 쫓을 뒤쫓다가 우연히 일본군의 만행을 목격하고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런 우발적 계기가 아니라면,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임여삼 일가는 숙명적으로 현실에 순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대간의 지향, 목적, 의식 체계가 어떻게 상이하고 괴리되어 있는지 말할 수 없다. 각 세대가 지닐 수 있는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역사적 독자성과 자기 운명의 특수성을 지닐 수 없다. 이는, 아버를 배반할 수 없는 자식이 자기 운명의 독자성을 표나게 드러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⁸⁾. 또 수십 년의 시간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아버가 후손의 삶과 행위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지침이 됨으로써 삶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셋째, 행위하는 인간의 연속성을 가족연속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역사발전의

7) 엄숙한 계보적 명령은 가계의 다양한 후손들을 선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아버지가 지닌 권위의 정당성 및 자식의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한다. P. D. Tobin, *Time and the Novel*(Princeton Univ. Press, 1978), pp. 4-9 참조.

8) 후술하겠지만, 『들불』은 이들 세대 모두가 동일한 목적과 의식적인 지향점을 지닌 것으로 규정한다. 여삼의 아들 정한이 아버지의 원수인 광무출과 화해하지만 이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도정을 드러내는 데 부자유스럽다. 일반 백성의 운명은 역사적으로 특수하다는 맥락에서 보면, 이들 가계의 영웅적 비범성은 일반 백성과의 차별적 거리를 유지하며, 이로써 그들 가계를 예외적인 것으로 기념비화한다. 따라서 그들이 전설적인 영웅일 수는 있으나 가계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변혁운동에 의식적으로 방향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역사과정의 필연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일 수 없다는 뜻이다⁹⁾.

3. 실권적 지식인과 농민군 지도자

1) 혼합된 충성심 : 연대의 모색과 그 한계

원징희와 이진악은 권문세가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 타락한 과거제에 의해 관료로 충원되지 못한 실권적 지식인이다. 권력을 장악하거나 분배 받기 위해 원징희는 지선교를 만들어 화적패 김개팔을 조종하며 동학군의 위세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진악 역시 출세의 방편으로 유배중인 김병순과 접촉한다. 그 과정에서 원징희와 달리 대원군을 국난을 극복할 자주적인 지도자로 숭배하게 되면서, 이진악은 명예와 권세라는 실리적 타산을 뛰어넘어 자주국가 건설의 '사명감'(1부 상, 229-232)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일제의 힘으로 입궐한 대원군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는 전봉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김개남과 함께 전봉준을 구출하려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이진악은 상하충으로 이동하면서 혼합된 충성심을 보인 중도적 인물에 가깝고, 이런 의미에서 그는 역사의 전환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변신에 필연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가 중도노선을 취한다고 보기도 힘들다¹⁰⁾. 전봉준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주체성이 강

9) 유사한 맥락에서 『들불』은 로망스의 세계에 속하는 통속적인 역사소설이라 비판된다. 이보영, 같은 글, 52-58 참조. 임여삼 일가의 저항의 연속성은 역사 전개나 운동 과정의 긍정면과 부정면, 선하거나 악할 수 있는 민중들의 다양한 열망을 형상화함으로써 한 시대 전체의 본질을 다면적으로 서술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는 이들 가계를 영웅적으로 기념비화하기 때문이다. G. 루카치, 같은 책, 37-39, 48, 96 참조.

10) 이점에서 임여삼과 다르다. 그러나 중도적 인물의 구성적 의의가 상호투쟁하는

한 지식인의 전폭적인 협조없이 는 거사가 성공할 수 없다 하고, 전봉준의 ‘정국을 찢른 간언’이라고 지적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백성들의 열풍같은 지지를 받는다 해도 뿌리가 없으면 사상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동학 지도층은 뿌리를 내리게 할 만한 지도자가 너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대부 식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썩었다고 덮어놓고 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는 새로운 기풍을 가진 참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 사조에 눈뜬 젊은이도 많습니다. 그들을 끌어들이어야만 됩니다.” (1부 하, 188-189)

이는 광범위한 층과의 정치적 연대를 모색한 것, 혹은 위로부터의 개혁세력과 연합하거나 동맹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앞서 보인대로, 그가 농민의 정서를 충분히 납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뿌리를 내리게 할 만한 지도자’를 변혁운동을 의식적으로 이끄는 자로 이해할 때, 그 방향성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이진악이 말하는 주체적인 지식인, 새로운 기풍과 사조에 눈뜬 젊은이란 누구인가? 그들은 ‘서양의 신문화, 신문물에 눈뜬 개화주의자’가 아니라 대원군을 옹립하여 외세를 축출하고 ‘영광의 조선’을 건설하려는 ‘혈기에 찬 국수주의자’(1부 하, 138)들이다. 『들불』은 대원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봉건적 배외주의를 외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긍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원군의 자주국가란 동시에 특정 세도가문의 세력을 제거하고 절대왕권으로 복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의 한 표현¹¹⁾이며, 그를 둘러싼 국수주의자들의 행동 역시 봉건지배층 내부의 당파적 싸움일 수 있다.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의 전주화약에 대한 다음 발언도 이런 입장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국단을 대개하여 상호파멸보다 인간적인 결합으로 이끌고 위기에 처한 역사적 이행기의 총체성을 서술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면, 이진악이 그런 의미의 중도적 인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는 비록 임여삼과 형제 결의를 하지만 빈농하층민의 일상생활과 체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씨정권이나 갑오개화 파정권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도적 인물에 대해 G. 루카치, 위의 책, pp. 29-35 참조.

11) 진덕규 외, 19세기 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pp. 19-23 참조.

“(…중략…) 청일 양국이 군대를 파병하여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봉착하였고 잘못하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적으로 해산해 준 것이야. 얼마나 현명하고 순수한가. 백성들이 이토록 유식하고 현명한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감격적인 일이야.” (1부 하, 139)

국운의 위기를 농민군 ‘때문’이라는 이준용의 발언은 자가당착이라 하겠다. 오히려 그 위기는 봉건체제의 내부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 외병차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민씨 일파 등 봉건지배층의 패관성과 부패에 기인하며, 농민전쟁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도 여기에 있다¹²⁾. 이를 몰각한 상태에서 백성에 대한 찬사는 민족구성원 각자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 어떤 근대적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준용 등이 영광의 조선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요구할 때,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기 쉽고 각 개인의 자유로운 성취, 자발적인 활동,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진악은 위 진술을 ‘동학군의 편에 서서’ 행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임여삼이 관군과의 협상과 농민군의 해산에 분노하여 김개남을 따른다(1부 하, 129)는 측면에서 보면, 이진악과 이준용이 농민군의 편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진악 역시 젊은 국수주의자들과 같은 반열에서 교유할 꿈을 버리지 않고(1부 하, 149) 있다. 또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군신의 의, 부자의 윤리, 상하의 위계”가 무너진 데 나라의 위기가 있다고 보는 점(1부 하, 189)에서, 그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요구와 결합하기 어렵다. 세계의 부당한 질서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는 민중의 입장보다 실권 지식인의 불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¹³⁾. 여기에 농민대중과 접합될 수 없는 봉건적 척사파와 실권적 지식인의

12) 이밖에 갑오개혁의 실패, 농민군 내부의 갈등과 통일적 지도체제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강재연, <봉건체제 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 안병직·박성수 외, 한국근대민족운동사(돌베개, 1980), pp. 328-330 참조. 『들불』은 외세간섭(신무기), 남북점의 갈등과 내부 동요, 지도자 부족, 지식인이 이 전쟁을 외면하는 등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점 등에 패인을 두고 있다.

13) 허균은 백성을 착취 억압하는 질서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재능의 균등한 발휘를 억제하는 질서를 공격한다. 전자는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蒙民論’으로, 후자는 집권층에서 탈락된 자의 불만을 집약하는 ‘遺才論’으로 표현된다. 이진악은 후자의 입장을 더 강하게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9 재판), pp. 206-207 참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 전봉준을 향한 충성의 다짐도 농민전쟁의 이념과 목표에 전폭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의 충성 이동에는 대원군에 대한 배신감과 전봉준의 열정, 따뜻한 인간미 등 전봉준 개인에 대한 우호적 감정(1부 하, 208)이 크게 작용하며, 특히 김개남과 달리 전봉준은 봉건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진악은 대원군의 정통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념적 대체의 논리를 결여하며, 농민군에 합류하면서도 미래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지니지 못한다.

2) 농민군 지도자 : 투쟁 목표의 불일치와 주술적 평면

『들불』은 농민군 지도자 중에서 특히 전봉준과 김개남의 성격과 투쟁방법을 대비해서 보여준다. 14, 16, 17, 20마당 등에서 보인 것처럼, 전봉준은 체질적으로 선비 사상을 지닌 양반 유자로 지혜롭고 신념에 차 있으나 소심하고 통속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된다. 그와 달리, 김개남은 순수한 농투성이라서 전주성 입성 후 보복과 약탈을 허용하는 등 항상 과격하고 성급하다. 그러나 부하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장래의 기량을 지닌 용장으로 평가된다. 『들불』의 개작, 정확하게 표현해서 24-25마당의 첨가는 김개남에 대한 재평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첨가 부분에서 김개남은 체포되어 압송중인 전봉준을 구출하기 위해 습격하다가 장렬하고 영웅적인 최후를 맞는데, 이런 내용은 소극적인 전봉준이 양반 선비라는 식자의 덫에 걸렸다는 것, 따라서 농민전쟁을 김개남이 이끌었다면 “완전히 달라진 결과”(2부 상, 28)를 가져왔을 것임을 암시한다¹⁴⁾.

두 사람의 차이는 전쟁의 실제 목표에 대해 불일치로 이어진다. 전주화약 직전, 전봉준은 손화중에게 “우리가 애초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키려고 일어났던 건 아니”라 하고, 조정이 내정쇄신의 요구 조건을 수락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1부 상, 121-122)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그는

14) 24, 25마당의 소재목을 <끝나지 않은 장정> <장군 김개남>이라 한 것처럼, 투쟁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김개남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항일의병의 군사적 투쟁노선을 암시한 것이며, 여삼의 아들 정우가 가는 길이지만, 제 2부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체제내적 개혁을 실제 전쟁 목표로 한 셈이다. 이진악은 시폐교정 12개 조목을 분석하여 척왜양과 구습 타파로 대별하고, 노비제도 폐지와 토지의 균등 분배 등 혁신적 요소가 있으나, 충효와 왕권통치를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 토대를 중시한다고 지적한다(1부 하, 145-146). 그러나 창 의문이나 격문에서 왕조를 긍정한 것은 표면상 구호일 뿐, 독사처럼 극도의 분노에 도달한 농민군이 천지개벽을 바란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공포를 느낀 바 있다(1부 상, 275). 이진악이 전봉준을 따르는 이유의 일단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청일전쟁 직후 대원군으로부터 동학군의 재무장 쟁기 세의를 받고 전봉준은 확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백성이 바라는 것은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근본적인 변화였고 백성을 대변하는 치자(治者)의 나타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참세상”이 오면 백성들의 충성심이 살아나고 “비로소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다(1부 하, 201, 208)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왕조를 근본으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1부 하, 121)고 주장하면서 관군과의 화약을 반대한 김개남의 입장에 가깝다. 같은 농민 출신인 임여삼이 김개남을 추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지도자의 차이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차이가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양자의 차이가 선비와 농민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될 때, 그들의 상황 인식과 외압에 맞서는 사회적 이유는 부차적인 요소가 되고 만다. 더구나 김개남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과격하다는 논리는 같은 농민이면서 일상 생활을 계속하는 농민의 향민적 요소를 부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전봉준이 선비였기에 지혜롭다는 논리는 원민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는 농민군의 행위를 맹목적인 한풀이로만 파악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전봉준과 김개남은 농민군을 동원함에 있어 주문과 부적의 신이 한 효과에 상당히 의존한다. 특히 전봉준은 불가능을 모르는, ‘영험한 신’으로 추앙을 받는다. 또 전주화약 당시 전사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불사의 신인(神人)’ ‘불사조’라는 자기신비화를 조작하고, 주문과 부적으로 군졸에게 불사의 신군의식을 불어넣는다.

“우리는 하늘을 대신해서 흉악한 탐관과 인도에 어긋난 천륜을 바로잡기 위해 하늘의 명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요, 두려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의 변설은 도도했고 그의 강론을 들은 자는 모두 그것이 사실이라 믿었다. 맨주먹으로 일어난 농투성이 군대의 사기가 이만큼 높은 것도 모두 그와 같은 힘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1부 하, 37)

동학군이 전봉준의 권위에 복종·헌신하는 것은 그의 변설이 지닌 힘, 부활의 이적과 같은, 예외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데 있다. 말하자면, 베버적 의미로 전봉준은 종교적 카리스마처럼 보인다. 위 인용에서 보듯, 전봉준은 농민군에게 초월적인 사명을 말하고 있을 뿐, 동학사상에 대한 설명과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는 투쟁 목표에 대해서는 이진악에게만 말하고 있다(1부 하, 189, 208). 이진악과 같은 지식인이 아니라면, 전봉준은 정치적 견해, 강령,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권위를 얻는 정치적 카리스마가 되기 어렵다¹⁵⁾.

그래서 전봉준은 주문과 부적의 비상한 효능을 강조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주문과 부적의 강조는 농민군의 행동을 맹목적 비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다. 즉 그것은 농민군이 혁명 이념에 주체적으로 공감한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전봉준은 관군의 대포가 지닌 위력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는 대포 앞에서 주문과 부적이 무기력하다는 것, 이에 농민군이 자신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두려운 것은 바로 그 점”(1부 하, 37)이기 때문이다. 대포 등 신식병기를 합리주의, 근대적 기술의 산물이라 한다면, 전봉준의 종교적 카리스마는 그 제물이 될 운명인 것이다. 따라서 전봉준의 신비적 주술적 매력은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한에서 유효하다. 이는 주술적 신비적 카리스마를 벗어나 농민을 합리적 권위에 기초한 정치적 평면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들불』에서 주문과 부적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는 패전 수습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1부 하, 57)되고 있다.

둘째, 주문이나 부적은 의식의 공감 영역을 확보하고 희망을 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¹⁶⁾. 너무나 혹독한 삶이었기에 위대한 능력을 지닌 異人의

15) 카리스마에 대해 칼 뢰벤슈타인, 현대적 관점에서 본 막스 베버의 정치사상(정문길 역, 삼영사, 1980), pp. 105-113 참조.

16) 자기신비화의 조작이나 ‘궁술’의 영부적 효과가 농민군 동원에 효과가 있었을

출현을 고대하는 것처럼, 진인출현설이나 『정감록』 같은 도참서가 민중을 결속시키는 이념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주문과 부적의 신이한 힘에 대한 강조는 농민의 미세한 심적 반응까지 놓치지 않으므로써 백성의 놀라운 힘을 발전하는 지도부의 능력일 수 있다. 그러나 『들불』은 지도자의 이런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주문을 외우며 공격하는 농민군의 맹목적인 모습과 참담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반백성의 신앙관을 이기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들불』이 농민의 입장과 관점, 농민의 생각과 정서를 전지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4. 사상의 비역사적 기원과 이념의 지평

1) 동학사상의 관념적 기원

고부기병이 조선 후기 민요, 민란의 “연장이나 다름없”고, 인내의 한도에 도달한 농민들에게 “알 수 없는 정신적인 힘이 되어 준 것이 동학”(1부 상, 248, 249)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이는 동학농민전쟁이 조선 후기사회의 내재적 모순에 규정된다¹⁸⁾는 뜻이다. 그렇다면, 동학사상이 전쟁의 주도적 이념이라기보다 하나의 소극적 계기가 된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들불』에서 동학은 이천여 년을 내려온 서민사상, 진사상에 닿아 있다고 지적된다.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민족 고유의 신앙 및 사상, 밝음과 태양을 숭배하는 샤만사상이 풍류도에 이르며, 불교 유교 등 ‘외래의 사상’에 짓밟혀 참다운 진사상이 망쳐졌다는

것이다. 또 왕을 직접 원망하지 않은 것도 충효의 윤리관에 젖어 있던 민중의 적의와 바깥을 유발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기도 한다. 목정균, <동학운동의 구심력과 원심작용>,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청아출판사, 1984), P. 251.

- 17) 수많은 비결, 참언, 참요를 통해 그것이 경서를 누르고 민심에 어떻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움직이는가를 보인 『녹두장군』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18) 17, 8세기 이래 지주층의 토지 집적,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지주/소작농 민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항조 투쟁이 격화되어 왔다.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일조각, 1984 중보 초판), pp. 34-35.

것이다.

동학이야말로 진(震)사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만민평등의 백성신앙이었다. 자기 정신의 수양과 심신의 연마부터 주장한 것은 상고 이래 풍류도와 통해 있었다.(1부 상, 182)

제 2부에서 여삼의 아들 정한은 동경 유학중 <조선인의 정신적 원류고(源流考)>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원류가 풍류도 속에 있다고 주장한다. 풍류도는 역사상 민족주체성이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 예를 들어 연개소문, 묘청, 궁예 등에게서 나타나며, 이들이 도교선술에 현혹된 무리로 묘사된 것은 사대주의 학자들의 고의적인 변조라는 것이다¹⁹⁾. 민족 교유의 사상이며 정신인 풍류도는 민중의 가슴과 피 속에 흘러왔고, 마침내 그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 준 것이 동학란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그래서 정한은 “동학란을 단순한 백성들의 항쟁 혹은 농민 혁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기독교 문화와 전통적인 풍류도 사상과의 싸움, 거기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2부 상, 271)으로 파악한다.

이상의 주장은 농민전쟁을 사상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투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상고 이래 동학에 이르기까지 만민평등과 심신수양의 전통이 연결될 때, 그 평등사상이 사회적 신분적 평등과 맺는 연관성이 약화된다. 동학의 경우, 심령구제의 종교적 심적 상태에서 실천에 의한 사회적 평등 쪽으로 평등사상의 취지가 진전된다고 말해지기 때문이다²⁰⁾.

둘째, 진사상을 민족의 피 속에 흘러온 것, 즉 모든 민족 현상의 영원하고 절

- 19) 1부에서 작가는 그릇된 역술이 연개소문이 심취한 도교선술과 결탁하여 악성신앙을 퍼트렸다 하고, 『삼한비기』 『정감록』 등을 그 대표적인 참서로 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교선술과 주역을 연구하여 지선교를 창시한 화적 두령 김개팔 일당을 권세의 욕망에 눈먼 邪教의 무리로 보며, 묘청과 정여립의 난도 같은 맥락에 둔다. 그런데 1부가 상재된 10년 이후의 2부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후술하겠지만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 20) 최제우의 ‘천심즉인심’→최시형의 ‘사인여천’→손병희의 ‘인내천’으로 평등관념이 진전되는데, 최제우의 경우 사회적 평등보다 종교적 심적 상태(천인합일)의 여운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작, 한말 내서널리즘 연구(청계연구소 1989), PP. 223-227 참조.

대적인 원천으로 간주할 때, 동학과 동학사상 자체가 갖는 역사적 구체성, 사상적 독자성이 약화된다. 이는 『들불』 전체에서 동학의 교리나 사상이 갖는 의의, 교단의 권위나 조직의 중요성 등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 점, 복첩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선대로부터 내림하는 임여삼 일가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어떤 이념도 지도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만든다. 이때 만민평등 사상도 민중을 결속시키는 현실이념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내외적 모순이 격화되어 간 19세기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지 못한, 추상적 비역사적 관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진사상 혹은 풍류도 사상을 동학이나 조선인의 정신적 연원으로 보는 것은 관념적인 기원의 실체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비역사적 과거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상의 구체적 내용보다 그것이 우리 것이었다는 데 비중을 두고, 그 초역사적 연원을 투쟁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현재와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신화적 사고에 속한다. 이런 신화적 사고는 역사의 생산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사상사를 강요함으로써 타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전형적 특권이 되기 쉽다²¹⁾.

2) 배외적 민족주의의 지향

『들불』은 조선후기의 내재적 모순과 관련시켜 당시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 21) 단일한 관념적인 기원을 실체화할 때, 그 기원에 대한 저항이나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 초역사적 위치에서 사상사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타자를 부정·억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J.M.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p. 73-74 참조. 『들불』은 동학에서 儒佛仙을 빼고 나면 진사상, 풍류사상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하고 있으나, 기억할 수 없는 上代로 올라갈수록 그 사상의 구체적 내용이나 독자성은 흐려질 것이다. 예를 들어 풍류사상도 죽음과 같은 인간실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을 부르는 것으로, 종교의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엄국현, <鄉歌의 개념에 대한 연구>, 『인제논총』 10권 1호(인제대학교, 1994), pp. 20-21 참조.

구관사또 이정룡은 본래 물욕이 과하고 포악한 자로 권문세가에 뇌물을 디밀고 엽관 운동을 해서 이 고을 원자리를 얻은 자였소. (...중략...) 그렇게 해서 짜낸 재물은 모두 돈으로 바꾸어 임피 읍내 왜짜전에 보내어 상품 백미로 사서 남모르는 외창(外倉)에 쌓아놓았다가 보릿고개에 쌀값이 고등하면 어느 곳 어디가 쌀값이 비싼지 겨냥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풀어내어 폭리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왜놈 장사꾼과 결탁하여 고급 사치품, 패물, 비단을 사들여 감사 묵인하에 서울 장사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앉아 있는 짐승은 누구요? (1부 상, 109-111)

이로 볼 때, 『들불』은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수탈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권력을 비판하고, 봉건권력과 결탁하고 봉건지배를 지탱시켜주면서 경제적 약탈을 일삼는 외세(일본)를 공격한다고 하겠다. 즉 변동기의 문제를 봉건적 수탈과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요구라는 것,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은 반봉건 반침략임을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불』은 집강소 행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전라도 각처에 집강소가 생기고 모든 면에 일신하는 기풍이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그것은 동학도들이 내건 공약들이 너무 급작스럽고 과격했기 때문이다. (...중략...) 이것은 차라리 온건하게 고치기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못했다. (1부 하, 174)

집강소 기간에 시행된 폐정개혁은 반침략 반봉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상당 부분이 갑오개혁에 반영된 점, 봉건권력의 타도를 명백한 목표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동학도가 내건 공약이 급진적으로 과격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²²⁾. 서술자의 위와 같은 지적은 탐관과 민원을 산 토호들의 재산 약탈을 묵인 해준 김개남과 달리, 폭력보다 설득으로 자진 협력하도록 유화책을 펴고 관민 화합을 강조한 전봉준의 노선과 통한다.

22) 폐정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반봉건 반침략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봉건지배의 체제내적 개혁을 통해 반침략에 대비하느냐 혹은 봉건지배의 전면적 부정을 통해 침략에 맞서느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어떤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작, 같은 책, PP. 236-242. 김인순, <조선에 있어서 1894년 내정개혁 연구>, 마연정리 외,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청아출판사, 1988, 3판) 참조.

“후천개벽의 시기에는 억조창생의 모든 백성이 동귀일체가 되어 보국안민 광제창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외세가 발호하니 지금이야말로 후천개벽의 시기가 아닌가 여겨지오.” (1부 하, 189)

사실 동귀일체란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 등으로 말해지는 동학의 중심되는 사상으로 인간평등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혁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²³⁾. 그런데 여기서 전봉준은 동귀일체를 내세워 내부의 적대적 대결을 제거하고자 한다. 즉 그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광범위한 계층의 화합과 연대를 모색한 것이다. 말하자면 민족 내부의 갈등과 투쟁을 피할 수 없는 체제전복의 반봉건 투쟁보다 이민족과의 반침략 투쟁에 강조점이 놓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봉준·이진악과 김개남·임여삼의 차이점이 하나로 통합된다. 즉 전자의 현명한 지도를 따름으로써 무분별한 보복이 가져올 내부적 자멸을 피하고, 후자의 과격한 무장 투쟁으로 민족 외부의 적에 맞서자는 것이다. 임여삼의 말처럼, “이가 갈리는 왜놈!”(1부 하, 249), “집안에 들어온 강도”(2부 상, 64)를 물리치는 반일 반침략 전선에 민족 내부의 적이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볼 때, 『들불』은 동학농민전쟁을 내 것을 지키는 반제반침략 전쟁으로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하여 역둔토를 사유화한 김진사를 德人으로 옹호하고, 반사회적인 인물인 광무출을 꺼안는 것이다. 현감 박동진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귀가 질린 후 광무출은 ‘손해보고 살기는 싫’다면서(1부 하, 239) 개화주의자가 되는 한편, 왜인 첩자의 심복이 되어 무기 밀매에 가담하고 국권박탈 후 친일지주요 자본가로 변신한다.

아버지 임여삼은 죽을 때까지도 변신한 광무출을 용서하지 않았다. 원수 지간이었지만 무출이 여삼에게 보인 증오심이나 원망은 여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 때문에 큰소리를 못 치고 산 것이다. 그런데 여삼의 아들 정한이 자기 집에 들어와 일을 하겠다고 자청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아비에게 저질렀던 과오를 그의 자식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2부 상편, 314)

23) 동귀일체는 후천개벽의 지상천국, 공동체적 낙원을 의미한다. 신일철, <최수운의 역사 의식>, 이현희 편, 같은 책, p. 28.

이로 미루어, 임여삼 일가는 계급대표자가 아니라 타민족의 침략에 맞선 민족 대표자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민족의 분열과 계급적 대립은 각자의 삶에 개입해서 깊은 영향을 남긴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의 운명이 불가피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사시와 달리, 소설이 한 계급의 생활만 배타적으로 형상화하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들불』처럼 내부적 대결로 인한 상처를 우회하는 것은 소설형식이 책임질 수 없는 강요된 화해일 것이다²⁴⁾.

물론 '강도' 일제 이외에 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공동체의 자존을 위한 저항의 논리이다. 그러나 내부의 모순을 억압하고 화해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그 논리는 근대적 민족의식에 미달하는 배외적 민족주의, 국수주의²⁵⁾에 닿는다고 하겠다. 이는, 민중의 삶과 역사의 전개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일의적 의미로 파악한 『들불』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시폐교정 12조목 가운데 이진악이 혁신적인 것으로 이해한 토지의 균등한 분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토지소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들불』은 이 문제와 긴밀하게 관련된 지주-전호관계와 조선 후기 농민층 분해의 구조적 요인을 놓치고, 동학군의 대 부민투쟁을 과소평가하게 된다²⁶⁾. 토지소유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 삼지

24) 서사시는 민족적 대립을, 소설은 계급대립을 취급한다는 뜻에서 그렇다. G. 루카치, 같은 책, p. 48. 이런 의미에서, 『들불』은 처음부터 반일을 전제하고 씌어진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공동의 수난이 공동의 저항을 유발하리라는 것이 소박한 당위론적 희망일 수는 있으나 객관현실은 아닐 터이다. 그런 희망은 이야기꾼이나 가질 수 있는 꿈이지 소설가의 그것일 수 없다. 이와 함께 임호한의 모호한 행적, 전장을 누비는 정옥이의 모습, 2부에서의 연대기적 불확실 등은 『들불』을 현실에 책임질 필요가 없는 통속적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

25) 일제라는 축으로 본다면, 배외적 척사가 변동기의 주체적 이념일 수도 있겠다. 김윤식, <주체와 진보의 갈등>, 서기원 외, 한국의 지성(문예출판사, 1977 중판), p. 60. 그런데 『들불』에서 갑오개혁은 일제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제의 침략 의도를 강조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개화파에게 개혁 주체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조선의 근대적 변혁의 내재적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타율사관일 수 있다. 김인순, 같은 글, p. 174 참조.

26) 관료지주가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를 집적하고, 고리대자본과 경영형부농이 하층 농민을 극단적으로 채무노예로 만들거나 농업노동자, 유랑농민을 만들어냄으로써 농민층 분해가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일조각, 1984, 중판), pp. 135-139, 198, 226 참조. 마연정리, <근대조선에 있어서

않는 한, 『들불』의 배외적 민족주의는 동학농민군의 실제 목표를 편협하게 만드다고 할 수 있다²⁷⁾.

5. 마무리

동학농민전쟁을 보는 시각과 해석은 다양하다. 이 전쟁의 최종 의미는 끝없이 지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농민전쟁의 소설적 형상화의 경우, 문제는 새로운 사료의 제시보다 역사에 관한 해석상의 지평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본고는 유현종의 『들불』에 나타난 민중에 관한 인식과 주요인물의 행위를 검토하고 동학사상과의 관련 및 작품의 이념적 지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들불』은 농민을 수동적인 항민과 맹목적인 원민이라는 양면으로 드러낸다. 그 결과, 그들을 이끌 지식인과 영웅적인 지도자를 강조하게 된다.

둘째, 『들불』은 빈농출신인 임여삼 일가의 영웅적인 행적을 강조한다. 그들 일가의 가족사적 연속성은 질서의 원리로 작용한다. 동시에 그것은 각 세대의 주체적 성장에 동기를 부여할 수 없고, 일반백성과의 거리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들 가계를 기념비화한다.

셋째, 실권적 지식인 이진악은 상하층의 연대를 모색하나 재능의 균등한 발

변혁주체·저항주체의 형성과 전개>, 마연정리 외, 같은 책, pp. 129-131 참조.

- 27) 동학의 정치사상을 척왜양 민족주의, 인내천 민주주의, 경제 평등주의라 할 때, 『들불』은 척왜양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 하겠다. 노태구, <동학의 정치사상>, 이현희 편, 같은 책, pp. 176-178. 동학농민전쟁을 외래문화와의 사상적 싸움으로 파악할 때, 이 민족주의는 문화적 자율을 추구한 것이 된다. 또 김개남의 투쟁과 정우의 의병 활동은 군사적 자주를 모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제 2부에서 귀국한 정한이 온천을 차지한 일본인이 못견디어 쫓겨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은 경제적 민족주의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파꾸출의 휘하에 들어가는 정한의 주장은 매우 역설적이다. 그 주장은 일본인이 장악한 온천장 주변의 땅을 사모아 쇠가죽 공장을 세우고 폐수와 악취로 일본인을 내쫓겠다는 것이다. 이 일리 성취된다면 결과적으로 친일지주에게 토지를 집중시키게 된다. 또 정한이 확신하는 사업성이라는 것도 일본군에 납품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이는 그의 반일운동의 관념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회를 강조하고 있어 미래체제에 대한 근대적 대안을 지니지 못하며, 그 결과 농민대중과 접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넷째, 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과 김개남은 성격, 투쟁방법, 전쟁의 목표에 있어 상이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농민군 동원에 있어 부적과 주문의 신비적 효능을 강조하는데, 이는 농민군의 행동을 맹목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고, 농민의 심적 반응을 기민하게 알아챈 것이기도 하다. 『들불』은 후자보다 전자를 강조한다.

다섯째, 『들불』은 동학사상의 연원을 진사상, 풍류사상에 둬으로써 관념적 기원을 실체화하는 신화적 사고를 드러낸다. 그 결과, 동학의 사상적 독자성과 역사의 생산성을 부정한다.

여섯째, 『들불』에서 민족 내부의 갈등은 가볍게 해결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은 강요된 화해와 흡사하다. 그 선상에서 『들불』은 이념적으로 배외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